

여성 리더 전성시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새 의장으로 재닛 옐런(Janet Yellen, 현 연준 부의장)이 지명되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하는 등 세계 각국의 여성 파워가 확대되고 있다. HP의 맥 휘트먼,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펩시의 인두라 누이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여성 CEO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된 가운데 국내 기업을 이끄는 여성 리더도 증가 추세다. 여성 CEO는 2000년 102만명에서 2011년 현재 130만명으로 27.5% 늘어났으며 전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5%로 높아졌다.

동남권의 여성 CEO는 동기간 19만 6천명에서 23만 4천명으로 19.4% 증가했고 전 사업체에서 4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여성 CEO 비중이 44%로 제조업 19.9%에 비해 높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여성 CEO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제조업의 여성 CEO 증가세가 주목된다. 2000년 8,186명(부산 4,391명, 울산 892명, 경남 2,903명)에서 2011년에는 11,877명(부산 5,459명, 울산 1,087명, 경남 5,331명)으로 3,691명 늘어났다. 이는 2000년 대비 46.1% 증가한 것인데 남성 CEO 증가율은 5.5%에 불과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여성 CEO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본다.

■ 여성 CEO 비중 ■

(단위 : %)

	전 국		동남권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전 사업체	33.9	37.5	37.9	41.3
(제조업)	13.4	18.8	15.3	19.9
(서비스업)	36.4	39.6	40.6	44.0

자료 : 통계청

세상 둘러보기

세대게임에서 이기기

기업 내 세대 구성

최근 세대간 갈등은 기업에서도 큰 고민거리다. 보통 기업 내에는 크게 세 그룹의 세대가 모여 일을 하는데 나이가 많은 세대부터 나열하면 베이비부머(1946~1960년대 중반 출생), X세대(196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출생), 마지막으로 Y세대(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이다. 특히 Y세대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이를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으로 다른 세대보다 일의 처리속도 및 승진이 빠른 편이다.

세대별 특징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의 세대들은 서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생산성이 높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X세대는 협동적인 팀 플레이를 선호하며 Y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는 능숙하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반항적 성향이 강하다.

상호 이해를 통한 융합필요

최근 승진을 하는 데 있어 연차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자신보다 어린 세대의 직원이 상사로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승진에서 밀린 연장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도태되었다고 느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한편 어린 상사는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세대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의 Y세대에 관한 책을 낸 댄 슈와벨(Dan Schwabel)은 나이 많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고 멘토링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보려고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직원간 단합에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질지는 의문이다.

▶ 채권금리 소폭 상승(채권가격 하락)

→ 섣다운, 디폴트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국 채권시장이 당분간 강세장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금리 소폭 상승세

▶ 다우지수 15,000선 붕괴

→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증시 약세

▶ 달러화 강세

→ 미국 연준 위원 대부분이 올해 안에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정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달러 매수세 확대

● 금리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4	10/7	10/8	10/9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6	2.66	2.66	2.66	2.66	-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6	2.67	2.67	2.67	2.68	-
국고채(3년)	2.82	2.88	2.82	2.83	2.84	2.85	-
회사채(3년, AA-)	3.29	3.25	3.24	3.24	3.25	3.26	-
회사채(3년, BBB-)	8.80	8.96	8.97	8.99	9.00	9.01	-

● 주가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4	10/7	10/8	10/9
KOSPI	1,997.1	1,926.4	1,997.0	1,997.0	1,994.4	2,002.8	-
애플	13,104.1	14,810.3	15,129.7	15,072.6	14,936.2	14,776.5	14,803.0
니케이225	10,395.2	13,388.9	14,455.8	14,024.3	13,853.3	13,894.6	14,037.8
상하이종합	2,269.1	2,098.4	2,174.7	-	-	2,198.2	2,211.8

● 환율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4	10/7	10/8	10/9
원/달러	1,071.1	1,109.0	1,073.0	1,071.0	1,072.5	1,074.0	-
원/100엔	1,247.5	1,129.2	1,096.0	1,101.6	1,106.6	1,106.7	-
원/유로	1,416.3	1,470.6	1,449.5	1,458.3	1,456.8	1,457.3	-
원/위안	171.9	181.5	175.3	175.0	175.2	175.5	-
엔/달러	85.86	98.38	97.97	97.16	97.04	97.00	97.22